

FCP, KT&G 방경만 사장 취임 1주년 성적표 발송

- 현 주가에 관해서 병어리가 된 “주가를 포기한 사장”
- 글로벌 트렌드를 “전력으로 역주행하는” 사업 비전
- 7.5% 자사주를 소각 않고 갖고 가겠다는 공공이에 큰 의문 표시
- IR에서 주주 질문을 원천봉쇄하는 동영상 공개... “주주와 소통에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 작년 3월 주총에서 단 38%의 표로 선임된 사장... “평가도 38점을 넘기 힘들어”
- 책임감 없는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에 찬성.. “KT&G법”이라 불러야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lashlight Capital Partners 이하 FCP, 대표 이상현) 방경만 사장 취임 후 1년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성적표를 5일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고, 관련한 동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FCP는 ▲주가 ▲재무/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 ▲독립적 경영마인드 ▲사업 비전 ▲투명성 다섯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모두 낙제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전임자들과 다르게 수량 중심에서 이익 증가에 힘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다.

FCP는 방경만 사장 취임 이래 글로벌 Top 4 담배회사의 주가는 평균 35% 상승했으나 KT&G 상승률은 5%에 그쳤고, KT&G의 EV/EBITDA는 4배 미만으로 경쟁사 평균 10배에 비해 ‘걸음마도 못 댄 수준’이라 말했다. 더군다나, 현 주가는 FCP가 캠페인을 발표한 직후인 2023년 11월의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무/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한 FCP는 ‘상장회사 CEO가 주가를 포기하면 안 된다’며 방경만 사장이 현실을 직면하고 극심한 저평가의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임 사장들이 자사주 기부 등으로 실질적 최대 주주 지위에 오른 흑역사를 지적하며 현재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7.5%의 자사주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어중간한 태도”를 지양하고, 주주가치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 먹거리인 궐련형 전자 담배 (HNB) 해외 판권을 경쟁사에 깜깜이로 넘긴 것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궐련 담배에 1조 원 투자를 집행한 것을 ‘시대 역행적’이라 비판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난 1년간 주가가 70% 오른 필립모리스를 벤치마킹하라고 요구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낙제점을 줬다. FCP가 공개를 요청한 수출 사업의 수익성과 2023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수조 원의 투자 성과를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분기 실적 발표에서 FCP가 Q&A를 하기 위해 시도하나 목살당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두려워한다면 상장회사 CEO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DlzEVkVr3o>)

취임 첫해인 2024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소폭이나마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임 사장들의 공허한 불룸 우선 마인드에서 벗어나려 힘쓰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상현 대표는 "현 이사회는 아마도 방경만 사장을 관행에 따라 후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현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논의 중인 상법 개정은 'KT&G 법'으로 불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경만 사장은 2024년 주주총회에서 50.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는데 자사주 기부 재단 등의 13% 내부 지분을 제외하면 38%를 득표한 것"이라며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방경만 사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1] 주주 질문을 원천봉쇄하는 KT&G의 실적발표 동영상 썸네일



[첨부 2] 방경만 사장님께 드리는 편지 (2025년 3월 5일)

문의: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유선규 상무 (skyoo@flashlightcap.com / 010-3926-3831)